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정윤*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랑가라컬리지	기간	2016. 8. 7(일) ~ 8. 27(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랑가라 컬리지는 밴쿠버에 위치하였다. 학교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전철역은 걸어서 5분정도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어 교통은 매우 편리했다. 컬리지 안에 있는 카페테리아, ATM기, 자판기, 카페(스타박스, 팀홀튼), 컴퓨터실, 도서관, 잡화점 등은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전체적으로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차분한 분위기였다.
수업	<p>도착한 첫날 제일 먼저 학교에서 한 것은 시험들 보고 반을 레벨별로 나누는 것이다. 중국, 일본, 한국 학생들 모두 같은 시험을 보고 나누어서 반마다 외국인 조성 비율이 다 달랐는데, 우리 반에는 한국인 2명에 나머지 13명 정도는 모두 일본 학생이었다. 그리고 모두 강당에 모여 밴쿠버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 배웠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사용법, 길을 잃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 홈스테이 가족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카페테리아 분리수거 방법 등. 이후에는 나누어진 반 별로 담임선생님과 함께 학교를 둘러보면서 학교 구석구석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시설 사용법을 배웠다.</p> <p>첫 번째 주에는 캐나다와 밴쿠버에 대해서 배웠다. 그리고 밴쿠버의 유명 관광지를 탐방하는 'Discovery vancouver'시간을 가졌다. 한 반에서 총 3팀으로 나누어 하루 일정동안 밴쿠버를 탐방하면서 준비된 질문지에 답을 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사진을 찍는 팀플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주의 숙제는 홈스테이 가족들의 인터뷰와, 과거 자신이 영어를 배운 경험 그리고 밴쿠버에 대한 의견을 저널로 써 오는 것이었고, 담임선생님은 첨삭을 해 주어 다시 새로 고친 글을 써서 제출해야 하는 방식의 숙제였다. 담임선생님은 랑가라에 처음 오신 분이지만 매우 적극적이었고 우리에게 영어를 배우는데 있어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 하셔서 좋았다.</p> <p>두 번째 주의 시작은 첫 번째 주의 활동이었던 'Discovery vancouver'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이었다. 팀별로 발표 자료를 만들어 팀원</p>

	<p>모두가 1~2분정도 발표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 수업내용은 문화에 관한 것이었다. 겉으로 보이는 문화부터 보이지 않는 문화를 배우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문화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 반에서 팀을 나누어 소셜 네트워크의 장단점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두 번째 주의 숙제는 자신의 여행 경험과 소셜 미디어에 대한 자신의 의견에 대해 저널로 써오는 것이었다.</p> <p>세 번째 주에는 캐나다의 역사에 대해 배웠다. 도시가 세워지기 이전의 캐나다로 시작해서 1950년대를 지나 현재까지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변화 그리고 문화적 의식, creation myth 등을 배우고 밴쿠버 박물관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퀴즈 맞추기 등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조별로 직접 creation myth를 만들어 보고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 이메일을 쓰는 방법을 배워서 담임선생님께 직접 써서 제출하는 숙제도 있었다.</p> <p>마지막 주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졸업식을 준비하는 것이었는데, 반끼리 어떤 식으로든 졸업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세레모니를 준비해야 했다. 그래서 우리 반은 그 동안의 사진을 모아서 영상을 만들어 발표를 하는 방식의 세레모니를 준비하였다.</p> <p>추가적으로 쓰자면, 매주 2개씩 쓰는 저널을 제외하고도 매일매일 우리가 공부하는 자료에 대한 자잘한 숙제가 있었고(다른 반에 비해 숙제가 많은 편이었다.) 수업 방식은 주로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팀으로 하는 활동이 많아서 일본인 친구들 사이에서 홀로 한국인이었던 나는 영어로 말하는 기회가 참 많아서 힘들었지만 도움이 되는 경험이었다.</p>
Activity	<p>첫 번째 주에는 'Discovery vancouver', 카야킹을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되었다. 'Discovery vancouver'의 내용은 위에서 언급하였고 카야킹은 버스로 30분~1시간 정도 되는 거리의 강으로 스쿨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카야킹을 배우고 2시간정도 타는 그런 활동이었다. 많이 젖는 활동은 아니지만 가끔 속옷까지 젖는 학생이 있어서 여벌온과 수건은 만약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좋다.</p> <p>두 번째 주에는 밴쿠버 아쿠아리움을 갔다. 이 곳에서 둘러보고 채워야 하는 질문지 같은 것이 있었고, 여기서 보고 느낀 것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쿠아리움을 둘러보면서 발표 준비를 조금씩 했다.</p> <p>세 번째 주에는 휘슬러라는 산을 갔다. 대자연을 보고 느끼고 오는 시간이었다. 날씨가 따뜻하여 2천미터 높이의 산에 올라가도 춥지 않았지만 곤돌라를 타고 내려올 때 추위를 느껴서 건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p> <p>학교에서 준비된 활동에 대한 입장료는 이미 지불이 되어서 학생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밥값정도였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하는 교통카드는 학교에서 발급해 주어서 별도로 드는 비용은 없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처음 도착하고 2일은 겨울이 올 것 같은 가을날씨로 매우 추웠다. 여름 옷만 준비해 갔는데 15~18도 정도 기온이라 매우 당황을 했다. 하지만 기온이 곧 올라가서 대부분의 날이 아침에는 18도 오후에는 24~27도 정도의 여름날이었다. 습하지 않은 날씨라 그늘에 있으면 가끔 추울 때도 있었다. 그리고 원래는 밴쿠버에 비가 많이 와서 레인쿠버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지내는 3주 동안은 한번도 비가 오지 않아서 홈스테이 가족들이 매우 운이 좋은 것 같다고 하셨다.
안전	밤에 집에 돌아가는 길에 주택가에 가로등이 없어서 무서웠지만 지나가다 보면 집집마다 주차장 불이 켜져서 그나마 괜찮았다. 그 외에 위험하다고 느낄만한 점들은 전혀 없었다.
숙소	나는 밴쿠버 밑에 있는 리치몬드 주에 살았고, 홈스테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매 식사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 주시고 식사마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 캐나다 생활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좋았다(두 분 다 필리핀 출신으로 이민 온지 45년차이다). 집과 화장실은 깨끗하고 내 방의 침대 시트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주셨다. 집안일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셔서 사실 설거지나 분리수거 빨래도 직접 한 적이 없었다. 강아지 한 마리와 함께 살았고 주말만 되면 파티를 가거나 공원에 가셨는데, 주말마다 그 분들과 함께 일상을 보냈다. 그래서 그 분들의 가족들도 자주 만났다. 쇼핑을 가거나 관광지를 갈 때에 현지인으로서 팁도 많이 주셔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v) 외부식당 (v) 기타() 홈스테이 할아버지께서 전식 병원 푸드 코디네이터셔서 음식을 참 잘하셨고, 세계의 다양한 음식과 과일을 매번 준비해 주셔서 밥을 참 잘 먹었다. 하지만 점심은 매번 샌드위치를 싸 주셨는데, 샌드위치가 맛있지만 밥이 너무 그립기는 했다. 친구들과 저녁까지 노는 날에는 밖에서 밥을 사먹게 되는데 빵이 너무 지겨워서 거의 매번 스시를 사 먹었다(스시가 굉장히 맛있고 싸다).

교통	<p>밴쿠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버스와 전철을 타고 등교를 했다. 집→전철역(버스이동), 전철역→학교 근처 전철역(전철이동), 역에서 내린 이후 5분정도 보도를 해서 합 50분 정도면 학교에 도착했다. 전철같은 경우는 5분에 한 대씩 와서 전혀 불편함이 없었지만, 버스는 월~금까지는 자주 있어도 주말만 되면 30분에 한 대씩 왔다. 게다가 평일도 밤만 되면 버스를 20~30분씩 기다려야 했다. 결론은 버스가 저녁과 주말에 대기시간이 많아서 불편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전철과 버스 모두 노선은 간단하고 또 구글 맵을 사용하면 어디서 타고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 매우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었다.</p>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개인부담금(항공료 외 기타)	1,711,200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300	
입장료	100	
쇼핑	400	
합계	800달러	

5. 출국 전 준비사항

<p>예상보다 추운 날씨 때문에 (비록 2일만 추웠지만) 캐나다에서 아우터를 하나 구입했었다. 여름에 걸칠만한 겔옷1개는 필수고, 이보다 더 추운 날도 조금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좀더 두꺼운 겔옷1개를 더 챙겨오는 것이 좋겠다.</p> <p>그리고 학교나 카페 백화점을 가면 와이파이가 잡히기는 하지만 구글맵을 이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캐나다 현지에서 유심을 사는 것을 추천한다. 나는 로밍을 했지만 현지에서 유심을 사는 것이 데이터나 문자 전화 등 여러 면에서 훨씬 이득이다(한국에서 유심을 사서 가면 전화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서 캐나다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홈스테이 가족들과 전화로 연락을 하는 것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유심은 꼭! 캐나다에서 구입하는 걸 추천한다.)</p>

6. 본인 소감 및 평가

캐나다에 단기 어학연수를 갔다 와서 가장 좋은 점은 영어권 나라에서 영어에 대한 접촉 기회를 늘린 것 이다. 하루 종일 외국인 친구들과 수업을 하고 선생님과 대화를 하고 집에 가도 홈스테이 가족들과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생각보다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주었고 그래서 거부감과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다. 그리고 제일 크게 느낀 점은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참 많고 이 사람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답답함이 너무 커서 아쉬움이 남는다. 캐나다에서의 경험이 너무 좋아서 휴학을 하고 어학을 공부할 나라를 고른다면 캐나다에 다시 가고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영어도 배우고 친구도 사귀고 현지 사람들처럼 생활도 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도 느껴보고 정말 최고의 경험이었다.

7. 사진보고서 (6장 이상으로 사진 크기에 맞추어 표 변형 가능)



→ 같은 반 일본인 친구들과 발표 준비



→ 마지막 날 다른 반 친구들과 잉글리시 베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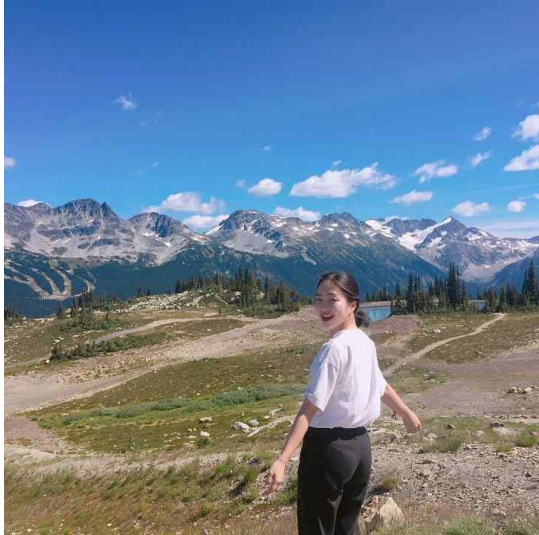
→ 같은 반 한솔언니랑 카야킹



→ 'Discovery vancouver' team A



→ 리치몬드. 집 근처 산책길



→ 휘슬러. 인생산 발견!